

EIB·유럽 집행위원회, 6개 스페인 도시에 e-모빌리티·기후 중립 기술 자문 서비스 출범

해당국가	EU/스페인	기관(기업)	EIB/유럽 집행위원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시·공간
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-

□ EIB(European Investment Bank)는 2026년 4월 15일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력해 EU 기후 중립·스마트 도시 미션* 하의 6개 스페인 도시에 e-모빌리티·기후 중립 기술 자문 서비스를 공식 출범

* EU가 2030년까지 100개 이상 유럽 도시를 기후 중립 도시로 만들고, 이 도시들을 본보기로 2050년까지 모든 유럽 도시의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Horizon Europe 산하 정책 사업

- 협약에 참여한 6개 도시는 바르셀로나·마드리드·세비아·발렌시아·발라돌리드·사라고사로 모두 EU Mission Label을 보유한 선도 도시들
 - 기술 자문 서비스는 InvestEU Advisory Hub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며 EIB의 직접 용자와는 분리된 별도의 자문 형태로 제공
 - 본 협약은 자동차·밴·경량 상용차의 전기 충전 인프라 확대와 기후 중립 도시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 배치 계획 수립을 지원
- EU 기후 중립·스마트 도시 미션은 100개 이상 도시가 EU Mission Label을 획득한 선도 도시군으로 구성되어 2030년 도시 기후 중립과 2050년 모든 유럽 도시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
 - 스페인 도시들은 2023년 10월 마드리드·발렌시아·발라돌리드·사라고사 4개 도시가 첫 EU Mission Label을 획득한 유럽 선도 도시
 - 2024년 3월 바르셀로나·세비아 추가 라벨 획득으로 6개 도시가 citES2030 플랫폼에서 공동 정책 조정을 추진하며 스페인의 미션 내 선도적 지위 강화

□ EIB의 기술 자문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SUEZ/IDOM 컨설팅 컨소시엄의 지원으로 6개 도시 e-모빌리티 솔루션의 계획·전개를 지원

- EIB의 자문은 e-모빌리티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, 투자 격차 해소, 다자간 협력 강화, 신뢰성 있는 영향 측정의 4가지 항목으로 운영
 - 자문은 e-모빌리티 투자·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전기 모빌리티의 투자·전개를 제한하는 장벽 분석을 통해 투자 격차 해소를 지원
 - 공공기관·민간 투자자·분야 전문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신뢰성 있는 지표 활용을 통해 환경 효과의 장기적 측정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
- 참여 도시별로 차별화된 e-모빌리티·기후 중립 추진 전략을 보유하며 EIB는 도시 특성에 맞춘 맞춤형 자문을 제공
 - 바르셀로나는 고밀도 도시 특성을 고려해 물류 허브와 공공 주차장 중심으로 Endolla 네트워크 1,000개 이상 충전소를 운영하며 확장 추진
 - 마드리드는 2050년 기후 중립 로드맵에 교통 부분의 전기화를 추진키로 하고 시의 토지·장비·보조금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외 접근 가능한 지역에 충전 인프라 개발 추진

※ 출처 : European Investment Bank(2026.04.15), EIB advises six Spanish cities on promoting e-mobility and moving towards climate neutrality